

전 조합원에 마을자치연금 쏜다

진안읍 외사양마을, 나이·소득 상관 없이 월 5만원 지급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마을이 군 최초로 마을 조합원 모두에게 매달 마을 자치연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도전에 나섰다.

4일 진안군에 따르면 외사양마을은 외사양농조합법인을 통해 지난 1월부터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수익금을 활용해 조합원 38명 전원에게 매달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마을이 군 최초로 마을 조합원 모두에게 매달 마을 자치연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도전에 나섰다.

외사양농조합법인은 마을 총 55세대 중 법인 가입을 희망한 38세대의 세대별 대표 1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자치연금 지급 방식은 기존 일부 연령층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타 지역의 마을 연금 제도와 차별화된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덕분에 마을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사양마을은 2015년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육성사업 공모 선정 이후 2019년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며

마이산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시설 등을 운영해 마을 경제의 자립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체험·숙박·음식 부문 모두 1등급을 획득하며 2025년 ' 으뜸촌 '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마을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 노력이 인정 받은 결과다.

김진국 외사양농조합법인 위원장은 "이번 마을 자치연금 지급 결정은

조합원들의 동의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외사양마을의 자치연금 지급은 마을의 자립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지속적인 공동체사업을 통해 더 많은 농촌마을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군민 불편 해소와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직접 소통 창구인 '민원인의 날'을 지난 3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인의 날'

진안군의회, 군민 감동 실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군민 불편 해소와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직접 소통 창구인 '민원인의 날'을 지난 3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의 날'은 군민과 진안군의회 의장 간 직접 대화를 통해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집행부와 협력하여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처리 과정과 결과는 민원인에게 투명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그간 동창욱 의장이 소통과 교감의 중요성을 늘 강조한 만큼, '민원인의

날'이 군민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군민 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창욱 의장은 "어려운 민생경제 속에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직접 만나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군민과의 공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의회 '민원인의 날'은 진안군의회 2층 의정실에서 매월 2일 개최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국도26호선 국도·국지도 건설 예타 반영

장수 천천~진안 진안 11.0km 구간 도로 개량... 군민·방문객 교통불편 해소

장수군 천천면과 진안군 진안읍을 연결하는 2차선인 국도26호선 구간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로 선정되며 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쏠렸다.

장수군은 4일 국도26호선(장수 천천~진안 진안) 도로 개량사업이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 건설계획(2026~2030)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도26호선 장수 천천~진안 진안간

도로개량사업은 현재 급커브와 급경사 등 선형불량 구간이 많아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는 2차선 도로다. 주민 및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총사업비 817억원을 들여 11.0km 구간의 도로를 개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국도26호선 예타 대상 선정으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평가 항목을 철저히 분석해 최종 계획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사업은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방문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며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공을 들인 만큼 전북특별자치도, 관계부처, 지역 국회의원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에너지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등 설치 지원

무주군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목)지원 및 △LPG용기 사용 가구의 시설개선, △보일러 점검 및 수리,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가구 등 지역 내 3백여 가구를 비롯해 복지시설 4곳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8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무주군에 따르면 가스안전장치(타이머목)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 주는 안전장치로 과도한 가스 사용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오래돼서 열화하기 쉬운 고무 재질의 가스 배관을 금속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일러 점검과 수리를 포함, 에너지 히터와 LED조명 교체 역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군민 안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효용을 얻고 있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임재영 과장은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며 에너지 복지 실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친구야, 함께 책 읽자'

무주군, 2025 올해의 책 14일까지 추천받아

무주군이 지역 내 '독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친구야, 함께 책 읽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친구야, 함께 책 읽자!'는 올해의 책을 함께 선정해 읽고 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열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무주군은 14일까지 무주상상만다숲 누리집(library.mujugok.kr) 형식 자평도서관 바로가기와 직접 방문을 통해 추천을 받는다.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해 일반·청소년·어린이 분야별 책 각 1권을 추천(3년 이내 출간된 책, 남녀노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할 수 있다.

'올해의 책(3권)'은 추천 기준에 따라 접수된 책 중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군민 투표를 거쳐 선정된다.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도서관팀 송순호 팀장은 "책이 선정되면 독후감 공모전을 비롯한 북콘서트와 독서 릴레이, 올해의 책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라며 "군민이 추천하고 선정해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게 될 '친구야 함께 책 읽자 프로그램'이 지역의 독서 분위기를 만들고 건전하고 지속적인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보건의료원, 내과 전문의 채용 진료 재개

장수군보건의료원이 신규 의료진으로 내과 전문의를 채용하며 외래 진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

군에 따르면 내과 박정규 전문의가 지난 3일 내과 과장으로 취임해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박정규 과장은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갖춘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깊이 있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내과 전문의 채용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더욱 향상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내과 전문의를 비롯해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한의과, 치과 등 다양한 진료 과목의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수=고판호기자

장수군,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자 모집

장수군은 오는 14일까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로, 비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참고와 축사만 지원했던 것에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원(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전액), 비주택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면적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해당 사업은 군에서 직접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해 진행하며 신청자가 공사업자를 선정해 슬레이트를 처리한 후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장수=고판호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